공학계 대학생과 공학계 직장인의 주체성-관계성과 나의식-우리의식,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

A Study on Subjectivity-Relatedness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ity-Relatedness and I Consciousness-We Consciousness, Self-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College Engineering Students and Engineering Workers

김 현 수*, 김 미 정**, 김 수 정***, 김 해 룡***

Hyun-Soo Kim*, Mi-Jung Kim**, Su-Jeong Kim***, Hae-Ryong Kim***

요 약

본 연구는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의식-우리의식,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능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공학계 대학생 및 직장인들의 대인관계능력 개선 활동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대상의 연령층은 10대에서 60대까지였으며, 직업은 공학계 대학생과 공학계 직장인 492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주체성은 나의식과 자아정체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관계성은 우리의식과 대인관계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검증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았다. 분석방법은 주체성과 나의식, 주체성과 자아정체감, 그리고 관계성과 우리의식, 관계성과 자아정체감 간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체성은 나의식과 자아정체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성은 우리의식,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Subjectivity-Relatedness, I Consciousness-We Consciousness, Self-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STRACT

The research is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Subjectivity-Relatedness, I Consciousness -We Consciousness, Self-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college engineering students and engineering workers. The research subjects were four hundred ninety two college students and workers. Their age was between ten one to sixty years old. Assessment tools used were Subjectivity-Relatedness Scale, I Consciousness-We Consciousness Scale, Self-Identity Sca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The research had two questions. Question 1. Does subjectivity have a relation to I-consciousness and self-identity? Question 2. Does relatedness have a relation to 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results indicate that subjectivity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consciousness and self-identity, relatednes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 한국기술교육대학교(hyunsoo@koreatech.ac.kr), ** 울산 한상담연구소 소장(mi30jung@hanmail.net)

*** 한국기술교대학교 HRD 대학원 박사과정(72sujeong@naver.com, citycop@naver.com) , 교신저자 : 김현수

접수일자 : 2012년 10월 23일
수정일자 : 2012년 11월 21일
확정일자 : 2012년 11월 28일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학에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권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창업관련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점이 현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재원(2008)[1]은 미래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12가지의 특성으로 분석력, 고안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경영능력, 지도력, 높은 윤리의식, 프로의식, 역동성, 민첩성, 탄력성, 유연성 및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오창헌 등(201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기대 졸업생이 직장에 취업을 하였을 때는 전공영역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인관계에서 조금씩 미흡한 점이 눈에 띄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내용에서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전공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 의사소통능력, 지도력, 유연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체성-관계성이 나의식-우리의식,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김현수(2008)[3]는 '주체성 검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김현수, 유 스티븐 철희, 유선미(2009)[4]는 '관계성의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의 두 연구는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문항제작과 요인구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였고, 본 연구는 그것을 발판삼아 타 요인들 간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성과 관계성

인간다운 인간은 씨알머리 있고, 말귀 알아듣는 인간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체적이면서 관계를 잘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성과 관계성을 명확히 구분 짓기는 애매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주체성과 관계성은 모두 관계를 의미하는 나와 나(自我)와의 관계를 주체성으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관계성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큰 틀에서 보면, 주체성도 관계성 속에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Mead(1962)[5]는 자아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했으며, 주체적 자아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능동적 주체이고, 관계적 자아는 자신의 말에 응답하는 자아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한기연(2003)[6]에 의하면, 관계성이란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 및 상호의존적인 통합이라고 했으며, 자신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규정하고, 자기주장적인 행동이나 성취지향적인 행동도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맥락에서 강한 자의식과 자기와 타인이 별개의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성이란 타인의 배척을 두려워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타인에게 기꺼이 자신을 개방하고 따뜻한 배려를 제공할 수 있는 타인지향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나의식과 우리의식

나의식은 개별적인 자기의식으로서 기본적으로 독립성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지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관계성의 측면이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와 타인간의 경계도 강하지 않다. 따라서 나의식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독자적인 자신의 모습 뿐 아니라 관계성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조윤경, 2002)[7].

박수현(1990)[8]은 '우리'는 자기와 타인들의 공통성이나 관계유사성의 인식을 통해 상호동질감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인지적 집단정체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김미정(2011)[9]은 우리의식은 나와 너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집단정체성이기는 하나, 기저에는 나름대로의 자기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우리의식을 이루기 때문에 나의식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이러한 건강한 나의식이 다시 우리의식을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아정체감

박아청(1998)[10]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인간이 성장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생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 등에서 자기가 지니는 독특성에 대한 지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라고 하였다.

Erickson(1970)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자아정체감은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대결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이란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하였다(전미숙, 장성숙, 2007)[11].

인간은 자유의지(freedom of will)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처럼 개인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며, 행동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대인관계 능력

Heider(1964)[12]는 “대인관계는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지각하는가? 그는 타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며,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라” 정의하였다.

한성열(1993)[13]에 의하면, 개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와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일견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이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 이 관계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이므로 양자 간에 계속적인 노력이나 애정이 없으면 끊어지게 되는 불안한 관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능력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 복합적인 과정이다(이형득, 1992)[14].

2. 연구문제

상기에서 다룬 요인들을 살펴볼 때, 주체성은 나의식,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고, 관계성은 우리의식, 대인관계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주체성은 나의식,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 관계성은 우리의식, 대인관계능력과 관련이 있는가?

II.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의식-우리의식,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체성-나의식, 주체성-자아정체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성-우리의식, 관계성-대인관계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학계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주체성과 관계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별의 하위요인별로 집단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검사대상자 및 검사일시

본 연구는 공학계 대학생 및 서울, 대구, 경기, 포항, 천안지역에 근무하는 공학계 직장인으로 1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550명의 설문 중에서 회수되지 않은 40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공백이 많은 설문18부, 즉 총 58부를 제외한 492부의 설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65일 동안 실시되었다.

2. 측정도구

주체성-관계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체성 관계성 척도는 김현수(2008)[3]와 김현수, 유 스티븐 철희, 유선미(2009)[4]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근거하였다.

주체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책임감, 자신감, 진실성, 적극성, 자기신뢰 및 자기허용이며, 관계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존중감, 개방성, 이해심, 도움수용, 대인감수성 및 신뢰감으로 12개 요인에 걸쳐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성의 내적 일치도(Cronbach′α)는 .872이며, 관계성의 내적 일치도(Cronbach′α)는 .815이다. 주체성 관계성 척도는 유동수 외 2인(2004)이 안면타당도를 중심으로 주체성 60문항, 관계성 60문항을 개발했으며, 요인수는 각각 10개 총 20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 김현수(2008)[3]는 주체성 문항을 35문항 6개 요인으로, 김현수 등(2009)[4]은 관계성 문항 32문항 6개 요인으로 규명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에서 밝혀졌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문항의 대체, 두 단어가 있는 요인명을 한단어의 요인명으로 정정하고, 3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나의식-우리의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나의식-우리의식은 조윤경(2002)[7]이 제작한 척도로, 원척도에서 나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α)는 .880이고, 우리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α)는 .850이다. 본 연구에서의 나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α)는 .924이고, 우리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α)는 .911이다.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은 박아청(1996)[15]가 개발한 한국형 다면적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850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α)는 .909이다.

대인관계 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 능력은 Wittenberg와 Reis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김창대, 김수임(2001)[1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820 - .910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α)는 .909이다.

III. 결과

1. 주체성, 나의식,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주체성과 나의식, 주체성과 자아정체감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주체성과 자아정체감과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알아 본 결과, 책임감, 진실성, 적극성, 자기허용, 자기신뢰, 자신감의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책임감, 적극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1. 주체성, 나의식,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분석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jectivity, I-Consciousness and Self-Identity

	주체성							나의식	자아정체감
	주체성	책임감	자신감	진실성	적극성	자기신뢰	자기허용		
주체성	1								
책임감	.866**	1							
자신감	.633**	.440**	1						
진실성	.829**	.718**	.326**	1					
적극성	.713**	.506**	.433**	.445**	1				
자기신뢰	.634**	.427**	.484**	.399**	.334**	1			
자기허용	.702**	.544**	.304**	.568**	.481**	.266**	1		
나의식	.477**	.384**	.481**	.325**	.403**	.354**	.190**	1	
자아정체감	.728**	.649**	.426**	.634**	.570**	.363**	.507**	.587**	1

**p<0.1

주체성의 하위요인과 나의식,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체성의 하위요인과 나의식과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나의식에 자신감 관련이 가장 높았고, 적극성도 관련 있게 나타났다. 자기허용은 부적으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책임감, 진실성, 자기신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주체성의 하위요인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아정체감전체에 대한 설명량은 55%이며, 6개의 변인 중 적극성이 강력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책임감, 진실성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주체성의 하위요인들이 자아정체감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체성 변인의 경우 진실성, 자신감, 자기신뢰, 적극성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수용성의 경우 책임감, 자신감, 진실성, 적극성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미래 확신성의 경우 진실성, 자신감이 정적인 변인으로 자기허용이 부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지향성과 정체감혼미의 경우 진실성, 책임감, 적극성이 정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도성, 친밀성의 경우 진실성, 적극성이 정적인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체감유예의 경우 책임감이 가장 높은 정적인 변인이고 그 다음으로 적극성이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기신뢰는 부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체성 하위요인에 대한 나의식, 자아정체감 간의 표준회귀분석
Table 2. Regression analysis - I-Consciousness and Self-Identity for Subjectivity sub-factor

주체성 하위요인	나의식	자아정체감								
		전체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
책임감	.115	.243***	.085	.391***	-.001	.248***	.041	.128**	.305**	.269***
자신감	.312***	.102**	.215***	.154***	.223***	-.016	-.034	.035	.063	.063
진실성	.097	.279**	.235***	.132**	.269***	.304***	.353***	.203***	.084	.228***
적극성	.208***	.247***	.153**	.119**	.084	.126**	.281***	.437***	.148**	.151**
자기신뢰	.084	-.002	.185***	-.053	.087	.030	-.081	-.022	-.139**	.017
자기허용	-.145**	.067*	-.017	.092*	-.151**	.077	.086	.093**	.082	.112**
R2	.312***	.547***	.404***	.464***	.180***	.409***	.333***	.508***	.241***	.443***
F	36.652	99.686	56.405	71.882	18.987	57.679	41.937	85.399	27.007	68.105

*p<.05, ** p<.01, *** p<.001

2. 관계성, 우리의식,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관계성과 우리의식, 관계성과 대인관계능력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관계성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개방성, 신뢰감, 대인감수성, 존중감, 도움수용, 이해심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방성, 대인감수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3. 관계성, 우리의식,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분석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atedness, 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관계성							우리의식	대인관계 능력
	관계성	존중감	개방성	이해심	도움수용	대인 감수성	신뢰감		
관계성	1								
존중감	.735**	1							
개방성	.745**	.355**	1						
이해심	.711**	.628**	.328**	1					
도움수용	.433**	.189**	.301**	.100**	1				
대인감수성	.653**	.298**	.413**	.281**	.173**	1			
신뢰감	.769**	.460**	.568**	.434**	.258**	.462**	1		
우리의식	.384**	.215**	.383**	.166**	.153**	.294**	.345**	1	
대인관계능력	.618**	.394**	.547**	.322**	.325**	.445**	.489**	.560**	1

** p<.01

관계성의 하위요인과 우리의식,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관계성의 하위요인과 우리의식과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우리의식과 관련이 가장 높은 변인은 개방성이며, 대인감수성, 신뢰감도 정적상관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존중감, 이해심, 도움수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관계성의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대인관계능력전체 설명량은 41%이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방성, 대인감수성, 도움수용, 존중감, 신뢰감의 순으로 정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 중 처음관계맺기와 정서적지지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개방성, 대인감수성, 도움수용의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불쾌감주장에 대한 변인으로는 도움수용, 개방성이 가장

큰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에 대한 변인으로는 도움수용, 개방성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대인갈등다루기에서는 대인감수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적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관계성 하위요인에 대한 우리의식, 대인관계능력 간의 표준회귀분석
Table 4. Regression analysis - We-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latedness sub-factor

관계성하위요인	우리의식	대인관계 능력	처음관계 맺기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
존중감	.051	.137**	.074	.125*	.132**	.071	.124*
개방성	.243***	.302***	.433***	.176**	.310***	.222***	-.018
이해심	-.044	-.015	.019	-.086	-.053	.086	.147*
도움수용	.016	.142***	.117**	.160***	.154***	.116**	-.019
대인감수성	.122**	.195***	.142**	.093*	.139**	.196***	.202***
신뢰감	.141*	.122**	.044	.102	.143**	.087	.143*
R2	.174***	.409***	.383***	.164***	.357***	.282***	.200***
F	18.22	57.620	51.852	17.072	46.399	33.075	21.462

*p<.05, ** p<.01, *** p<.001

표 5. 주체성과 관계성의 중앙치 분리에 따른 4집단간 대인관계 능력 일원변량분석
Table 5. One-way ANOVA analysis for 4 classes which is designed by Level of Subjectivity-Relatedness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평균 (표준편차)	F	집단간 차이검증
주체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관계성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사례수	193	53	69	177	492		
대인관계 능력	125.00a	118.09b	116.37b	110.42c	117.92 (12.52)	56.244***	1>2,3>4
처음 관계맺기	25.40a	23.23b	24.211	21.55c	23.60 (3.52)	48.971***	1>2,3>4
불쾌감주장	24.02a	22.73ab	22.91ab	21.56b	22.84 (3.41)	17.633***	1>3>4
자기노출	24.98a	23.00bc	23.56b	22.01c	23.50 (2.92)	40.047***	1>2,3>4
정서적지지	26.24a	24.45b	25.04b	23.32c	24.83 (3.17)	31.325***	1>2,3>4
대인갈등 다루기	24.47a	23.07b	22.78b	21.96b	23.18 (2.94)	26.587***	1>2,3,4

*** p<.001

주체성과 관계성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4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에 제시>. 그 결과, 주체성과 관계성이 높고 낮음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주체성과 관계성이 둘 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주체성과 관계성이 높은 집단은 대인관계능력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체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능력 전체와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소인 처음관계맺기, 불쾌감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미래 공학계 인력의 필요역량이 전공기술뿐만 아니라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도력과 유연성 및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관계성 척도와 나의식-우리의식,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체성, 나의식, 자아정체감 간의 관련성을 보면, 첫째, 주체성과 나의식, 주체성과 자아정체감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주체성의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을 알아 본 결과, 책임감, 진실성, 적극성, 자기허용, 자기신뢰, 자신감의 순으로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책임감, 적극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주체성과 나의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의식에 자신감이 가장 높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적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의식의 하위요인인 성취지향성과 자기수용성 그리고 자기우월성요인들의 특성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자기허용은 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허용보다는 자기관리가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자기허용이 부적 관련성이 높은 것은 예상 가능한 지각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주체성의 하위요인들이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유예, 정체감혼미의 요인들에 진실성, 적극성, 책임감, 자신감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 확신성의 경우 자기허용이 부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체감유예의 경우 자기신뢰가 부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미래 확신성에 대한 자기허용 이나 정체감유예에 대한 자기신뢰의 부적 영향은 상대적인 내용으로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예상 가능한 지각이라 해석된다.

다음으로 관계성, 우리의식,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련성을 보면, 첫째, 관계성과 대인관계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관계성하위요인과의 대인관계능력의 상관을 알아 본 결과, 개방성, 신뢰감, 대인감수성, 존중감, 도움수용, 이해심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개방성, 대인감수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감수성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기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공감수용하고 상호 개방하고 따뜻한 배려를 제공할 수 있는 타인지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둘째, 관계성의 하위요인과 우리의식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우리의식과 개방성, 대인감수성, 신뢰감이 가장 높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지향적인 문화로 서로 친화적이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관계성의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관계성의 하위 요인 중 개방성, 대인감수성, 도움수용, 신뢰감, 존중감의 순으로 전체 대인관계 능력을 정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대인관계능력 중 처음관계맺기, 불쾌감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비슷한 수준에서 개방성, 대인감수성, 도움수용, 존중감 순으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인갈등다루기의 경우 대인감수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적요인임을 확인 수 있다. 관계지향적인 한국문화에서는 대인감수성 능력이 중요하며, 예민함과 섬세함을 통해 자기 자신(眞我)과 타인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으로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학계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주체성과 관계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별로 하위요인별로 집단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주체성과 관계성이 높고 낮음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주체성과 관계성이 둘 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주체성과 관계성이 높은 집단은 대인관계능력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주체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과 관계성 척도를 통해 분명하게 자신을 세워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자신(眞我) 및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세 가지의 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들이 공학계 대학생들과 공학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공학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이 나타낼 수 있도록 전체직종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주체성-관계성 척도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문항대체 하였으나 각 변수들의 문항수가 5개와 6개로 동일하지 않아 통계분석 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후속 연구에서는 평가척도의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 변수들의 문항수가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주체성-관계성 척도 선행연구에서 두 단어인

하위요인명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한 단어로 정정하여 진행했으나, 하위요인을 대표하는 요인명으로 애매한부분이 남아있다. 이 또한 후속연구에서 적절한 요인명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최재원. *특집:글로벌 경제 환경하의 공학도를 위한 혁신 방향.* 공학교육: 15(1) 38-39. 2008.

[2] 오창헌 외 5인. *실천공학기술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연구센터. 2011.

[3] 김현수. *주체성 검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문집, 15(1), 702-714. 2008.

[4] 김현수. 유 스티븐 철희, 유선미. *관계성 척도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문집, 16(1), 672-686. 2009.

[5]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Morris, C. W.(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6] 한기연. *개별성-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관계에서 자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75-89. 2003.

[7] 조윤경.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8] 박수현.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9] 김미정. *주체성-관계성 증진을 위한 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 박아청.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1998.

[11] 전미숙, 장성숙. *여성수도자들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와 수도생활 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인문과학논총, 12(1), 223-234, 경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7.

[12]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4.

[13] 한성열.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엄 한국인의 특성, 45-59. 1993.

[14] 이형득.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92.

[15] 박아청.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140-162. 1996.

[16] 김창대, 김수임. *대인관계능력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35(1), 83-95.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1.

김 현 수 (Hyun-Soo Kim) 종신회원

1977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1980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1991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1992년~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HRD 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코칭, 리더십, 조직행동, 조직개발, 인력개발

김 미 정 (Mi-Jung Kim)

1990년 2월 : 대구 효성여대 일본어학과 (학사)
2003년 2월 부산 경성대학 교육학과 (석사)
2012년 2월 대구 가톨릭대 교육학과 (박사)
<관심분야> 상담, 감수성훈련, 코칭 리더십, 부모교육

김 수 정 (Su-Jeong Kim)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
2010년 3월~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관심분야> 인력개발- 리더십, 조직개발, 코칭

김 해 룡 (Hae-Ryong Kim)

1985년 2월 :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
2011년 3월~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공학, 인력개발-리더십, 조직개발, 코칭, 핵심인재 관리